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  
 LG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특허청과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기술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LG전자 IP센터장 조희재 부사장(왼쪽)과 특허청 목성호 차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고객중심 경영 앞장**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고객전략회의와 시너지추진협의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앞줄 왼쪽) 등 경영진들은 고객신뢰와 고객경험, 저출생·고령화를 올해 고객전략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NH농협금융



**한솔제지-전주시, 한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한솔제지가 전주시와 '한지문화 보존 및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안정적인 보존 및 한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우범기 시장(왼쪽 두번째),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제지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4월 20일까지 대학생 문화행사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주제는 '민화'로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과 소망을 담고 있고, 궁중이나 사대부 회화에 비해 표현이 자유롭고 해학적이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되며, 전문가 멘토링, 활동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부음**

▲김남희씨 별세, 이동진(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이성진·이배진·이기진·이해숙씨 모친상, 강병열·김종대씨 장모상=29일, 건양대병원장례식장 특102호실, 발인 4월1일, 042-600-6660  
 ▲김성근씨 별세, 김순옥씨 남편상,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김은정씨 부친상, 이규환(일산신협 마두분점지점장)씨 장인상, 신혜인씨 시부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1일, 02-3410-6901

**효성그룹, 故조석래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조현준 회장 “아버지 뜻 이어받아 백년효성 만들 것”**

**조 회장 등 유가족, 임원 참석 “한미일 경제안보동맹 역할 최선”**

효성그룹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29일 조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식이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치러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과 임원, 내빈 등이 추모식에 참석했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약력 소개, 추모사 낭독,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 헌화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을 추모하면서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시대의 변화를 읽는 혜안과 강철 같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점한 결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위기는 언젠가 닥쳐오고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생전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셨을 때는 한일 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조현준 효성 회장 및 (왼쪽에서 네 번째)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있다. /효성

계, 한미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걱정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회상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께서 ‘항상 공학도가 더 사랑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을 예의주시했던 점에서도 새삼 선견지명이 느껴진다”라며 “아버지께서 매년 공학도 500만 명을 배출하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중국 공학도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시며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망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효성을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사, 글로벌 정세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백년효성을 차돌같이 단단한 회사, 어떤 위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한미일 경제안보동맹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970년 동양나이론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동양폴리에스터, 효성물산, 효성중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제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2년 2대 회장에 오른 뒤에는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 부문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드림보이스’ 10주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확대**

4450세트 음성도서 제작

롯데홈쇼핑이 전개하는 시각장애 아동 지원 나눔 활동 ‘드림보이스’가 10주년을 맞았다.

드림보이스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6년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운영해 온 음성도서 제작 사업이다. 시즌1 초기 기획 단계부터 쇼호스트와 음악감독 등 방송 전문가 임직원들이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드림보이스는 시즌7까지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96권의 도서를 녹음하고 4450세트의 음성 도서를 제작했다. 제작된 도서는 복지시설 1700여 곳에 기증됐다. 특히



롯데홈쇼핑 사회공헌 활동 ‘드림보이스’에 참여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있는 임직원 모습. /롯데홈쇼핑

시즌7부터는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음성도서 녹음에 참여하는 ‘낭독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림보이스는 장애로 인해 학습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교과서 수록 도서를 중심으로 음성도서를 제작한다. 지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도 음성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임직원 재능 기부로 제작한 오디오북과 음성도서 제작 기부금 7000만원을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롯데홈쇼핑 박재홍 지원본부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서울맹학교 정은영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쇼호스트 등 방송 전문가를 비롯한 임직원 170여 명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제작한 음성도서 26권을 기부했다. 아울러, 음성도서 제작 사업 ‘드림보이스’ 운영을 위한 기부금 7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음성도서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6곳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드림보이스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시즌8 오디오북제작을 위한 녹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산불 피해복구 지원**

**한경협, 성금 5억 전달... 임직원 봉사단 파견**

류진 회장 “복구 적극 동참”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도



한경협은 회원사에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독려하고 임직원 봉사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28일 회원사에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 순직한 진화대원 유가족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한경협은 회원사에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독려하고 임직원 봉사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28일 회원사에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애경산업 3억 상당 물품 전달**

애경산업은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3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애경산업의 구호물품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 치약, 칫솔, 삼푸, 바디워시 등으로 구성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경제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사진)은 “산불로 인한 사상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제계도 피해지역 지원과 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